

# 허정무호 자블라니 적응력을 높여라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공인구인 '자블라니(Jabulani)' 적응에 들어갔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7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전지훈련 예비명단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자체 연습경기 때 자블라니를 처음 사용했다.

예초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년 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에 자블라니를 배포할 계획이지만 공인구 제작사인 아디다스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공 30개를 긴급 공수한 것이다.

자블라니는 한 개 가격만 해도 16만9천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국내 물량도 그리 많지 않다. 남아공 공용어 중 하나인 줄루어로 '축하하다'는 의미를 담은 자블라니는 미세한 특수 돌기를 공 전체 표면에 배치해 골키퍼가 잡기에 좋고 공이 날아가는 궤적의 안정성을 높여 정확한 슈팅이 가능하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인구였던 피버노바와



공 표면에 미세한 특수돌기 숫 정확성 높여  
스피드 빠르고 변화 심해 많은 골 터질 듯  
전력의 승부에 영향... 대표팀 긴급공수 훈련

2006 독일 월드컵에 사용됐던 팀가이스트보다 온도와 날씨에도 공의 수축 등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게 아디다스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을 차 봤던 선수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자블라니가 가장 먼저 사용된 건 공인구로 채택했던 올해 FIFA 클럽 월드컵에서다.

클럽 월드컵에 출전해 직접 이 공을 차 봤던 대표팀 예비 후보 수비수 김형일(포항)은 "공격수에

게 무조건 유리하다. 변화가 굉장히 심한 공이라서 무회전력을 차는 선수들에 특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 K-리그에서 베스트 11 골키퍼로 뽑혔던 포항의 주전 수문장 신화용 역시 "볼의 순간 스피드가 빠르고 순간적인 휘어짐이 많이 일어난다. 월드컵에서 골이 많이 터질 것 같다"며 골키퍼보다 필드 플레이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팀이 27일 자체 연습경기 때 자블라니를 사

용했으나 눈발에서 공을 차는 바람에 선수들이 정확한 느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자블라니 공 표면에 특수 돌기가 있음에도 꽤맨 자국이 없어 물기 탓에 미끄러짐 현상이 많았다는 게 선수들의 반응이었다.

대표팀은 내년 1월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스페인 말라가로 이어지는 전지훈련 때 자블라니로 훈련하며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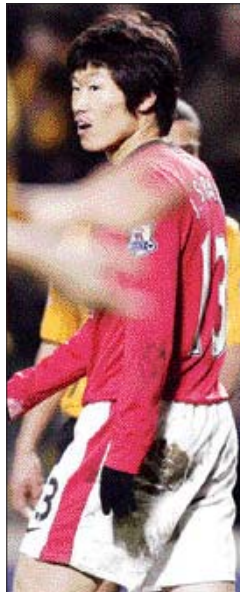
한국은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와 해발 1천700m가 넘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맞붙는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의 속도는 빨라지고 비거리는 길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다. 대표팀 전지훈련 장소이자 월드컵 기간 베이스캠프를 차릴 루스텐버그도 1천200m가 넘는 고지대다. 객관적인 전력 외에 승부에 영향을 미칠 공인구 자블라니에 얼마나 적응하느냐도 대표팀의 과제인 셈이다. /연합뉴스

## 박지성 중흥무진

후반 교체투입 팀 결승골 유도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교체 선수로 나가 승부를 뒤집는 결승골을 이끌어냈다.

박지성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킹스톤 커뮤니케이션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09-2010 리그 19라운드 헐 시티와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18분 안토니오 발렌시아와 교체돼 오른 쪽 날개로 그라운드에 나왔다. 맨유가 지난 20일 풀럼에 0-3으로 참패한 데다 이날도 약체 헐 시티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 호출을 받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중흥무진 누볐다.



박지성은 특히 후반 28분 자신의 골과 다름없는 득점을 유도했다. 라이언 깁스가 오른쪽 미드필드에서 페널티지역 오른쪽에 있는 웨인 루니에게 스푸스를 전달했고 루니는 함께 골문으로 달려드는 박지성에게 짧고 강한 횡패스를 찼다. 하지만 공은 박지성의 발에 걸리기 직전에 상대 수비수 앤디 도슨의 발을 맞고 자책골이 됐다.

도슨이 박지성의 슈팅을 차단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박지성의 골이 될 상황이라서 아쉬움을 남겼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이날 루니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를 투입으로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는 깁스와 발렌시아를 찼다.

중앙 미드필더로 마이클 캐릭과 대런 플래처가 호흡을 맞췄고 수비 진영에는 파트리스 에브라와 웨스 브라운, 네마냐 비디치, 하파엘 다 실바가 선발로 나왔다. 골키퍼 장갑은 토마스 쿠시착이 찼다. 맨유는 전반 추가시간 2분에 루니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플래처의 크로스를 받아 선제골을 뽑아냈다.

후반 14분 크레이그 파킨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1-1 동점 행진을 이어가자 퍼거슨 감독은 4분 뒤 오른쪽 측면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던 발렌시아를 빼고 박지성을 투입했다.

박지성의 교체 출전과 함께 지지부진하던 맨유의 공격은 활기를 띠었다. 맨유는 후반 28분 박지성의 도움에 가까운 상대 자책골에 편승해 2-1로 전세를 뒤집었고 후반 37분 루니의 패스를 받은 베르바토프가 1골을 보태면서 3-1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맨유는 이날 승리로 승점 40을 기록해 아스널(38점)을 제치고 리그 2위를 되찾았으며 선두 첼시(42점)와 승점차도 2점까지 좁혔다. 이날 선제골을 사냥한 루니는 시즌 13골로 디디에 드로그바(첼시), 제메인 디포(토트넘)와 득점 부문 공동선두에 나섰다. /연합뉴스



“금빛 기대하세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28일 오후 태릉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힘차게 트랙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日 아사다 동계 올림픽 출전

## 김연아와 금빛대결

최악의 부진에 빠졌던 일본 여자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19·사지)가 뒤늦게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해 내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와 '금빛 대결'을 펼치게 됐다.

아사다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막을 내린 2009 전일본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5.50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69.12점) 점수를 합쳐 총점 204.62점을 획득, 2위 스즈키 아키코(195.90점)를 8.72점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아사다가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6년 대회를 시작으로 4회 연속이고, 이 대회에서 200점대를 넘은 것은 지난 2006년 대회(211.76점)와 2007년 대회(205.33점) 이후 세 번째다. 이로써 아사다는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차지해 이어질 밴쿠버행을 확정할 안도 미키(22)에 이어 일본에 배정된 3장의 동계올림픽 피겨 출전권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 워드 37야드 전진

NFL 피츠버그 5연패 뒤 2연승

미국프로풋볼(NFL)에서 뛰는 한국계 하인스 워드(33·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터치다운 없이 37야드를 전진했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28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홈구장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필드 홈구장에서 벌어진 라이벌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시즌 16주차 경기에서 4번 패스를 받아 37야드를 나아갔다.

지난 경기까지 시즌 통산 1천 야드를 돌파한 워드는 이날은 37야드로 리시빙 야드에서 팀에서 세 번째로 그쳤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5연패 뒤 2연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밝혔다.

피츠버그는 20-10으로 앞선 3쿼터 볼티모어 토드 브라운의 터치다운과 빌리 칸디프의 필드골로 20-20 동점을 허용했지만 4쿼터 제프 리드가 종료 5분여를 남기고 38야드짜리 필드골에 성공하면서 23-2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 女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이상엽

여자축구 대표팀을 이끌 새로운 사령탑으로 이상엽(57) 한양여대 감독이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프로축구 FC서울 수석코치로 자리를 옮긴 안익수(44) 전 여자대표팀 감독의 후임으로 이상엽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엽 감독은 1970년대 초반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2005년부터 한양여대 감독을 맡아왔다.

이상엽 감독은 또 축구협회 경기위원(1996년)과 여자축구연맹 부회장(2005년), 기술위원(2006년)으로도 활동했고 올해 한양여대를 여왕기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 감독은 내년 1월 예정된 대표팀의 미국 전지훈련과 2월 개최될 동아시아연맹 대회,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선수권대회를 지휘한다. /연합뉴스

## 경기 단체장 '친위조직' 사라진다

KOC, 중앙대의원제 40년만에 폐지

체육 경기 단체장들이 신망을 잃고도 자리를 지키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던 중앙대의원 제도가 40년만에 폐지된다.

대한체육회(KOC)는 28일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현재 가맹 경기단체에서 시행 중인 중앙

대의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각 경기단체 대의원의 25%를 차지하는 중앙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지명하지만 사실상 경기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 관행이었다. 1970년대에 도입된 이 제도는 한국 스포츠가 부리를 내리지 못했던 과거 시대 상황에

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일부 경기단체장이 친위 조직이나 다름없는 중앙 대의원을 앞세워 장기 집권 또는 독선적인 단체 운영 등 전횡을 일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체육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부터 각 경기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중앙대의원제를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